

“이명박 전 시장은 땅문제선 ‘금메달감’



이해찬 전 총리 “스스로 퇴장해야” 촉구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총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스스로 퇴장하라”고 19일 거듭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포퓰리즘에서 ‘세계 일류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갖고 “요즘 ‘이랜드’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이랜드’는 비정규직 얘기가 아니라 이 전 시장의 땅투기 문제로, 이 전 시장은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전 시장의 땅 문제와 관련, “서울시장 때도 서초동 땅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대단한 능력과 배짱을 가졌다. 현대건설에 있을 때 자기 회사 땅을 처남과 형에게 팔아 원금이 240억 원을 벌었다. 대단한 능력이다”며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초점이 주민등록초본 부정 발급으로 모인 데 대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들리지 않으려고 무단횡단해서 날 잡았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 “60년 만에 한반도에 동북아 평화체제가 도래하고 있다”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안목, 원칙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양극화 해소, 민주주의 성숙 등 4가지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전 대표가 5·16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라가 걱정이 아니다. 표를 많이 잃을 예기”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무안공항 건설현장도 방문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제3지대 대통합 신당’ 배격

출발도 하기전 지분 다툼...미래창조연대 불참 4자회담 연기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이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의 지분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범여권과 시민사회세력의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선진평화연대’, 시민사회그룹인 ‘미래창조연대’는 여의도 모 호텔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미래창조연대 측이 불참, 회동이 20일로 하루 연기됐다.

미래창조연대가 이날 회동에 불참한 배경은 창당준비위원장의 인선과 지분 문제로 알려졌다. 미래창조연대는 임시집행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그룹이 5대 5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제3지대에 참여하

는 각 정과 대표 3명과 추가 탈당과 대표 1명, 시민사회그룹 대표 2명이 공동 창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이 미래창조연대 측의 강력한 반발에 범여권은 제3지대에 참여하는 각 정과 대표 3명과 시민사회그룹 대표 2명이 공동 창준위원장을 맡고 중앙위원을 창조연대 측과 1대 1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시민사회그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실체도 없는 세력이 제3지대 신당의 지분 50%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범여권 일각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창조연대가 불참하더라도 정치권 3개 정파만이 우선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 제정과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

전 국회의원과관 대회의실에서 창준위 발족식을 갖고 내달 5일 올림픽공원에서 창당대회를 치르기로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이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참여 문제를 놓고 내부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 대통합과와 열린우리당 추가탈당파의 탈당결행 시점은 이번 주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오주수석부위원장 등 500여명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통합 신당창당 지지를 선언했고, 임대우씨 등 구 민주당 원의 지역위원장 55명도 ‘대통합신당 창당준비위’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20일 광주를 방문, 잡탕식 대통합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당내 대통합과 분열적 행동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범여권 후보도 검증 응하라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한나라당에 이어 범여권에서도 후보 검증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상은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다. 논란의 핵심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그가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 자격이 있는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의 전신 정당인 신한국당에서 대법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를 방문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손 전 지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부정했다”며 “우리가 자존심도 없느냐”고 공격했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정신병자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말했다”고 지역 민심을 자극했다.

특히, “광주 정신을 잊은 적 없다”는 손 전 지사의 발언과 관련, 천정배 의원은 지난 16일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당에 들어가는 것이 광주정신이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의 집중 포화에 대해 손 전 지사는 “무엇이 (대선에서) 이기는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한 발 비켜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짧은 시절 노동·민민운동에 앞장섰으며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자신이 민주개혁세력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손 전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는 “과거 대법인 시절의 정치적 정황을 잘라내고 특정 발언 부분만 부풀려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범여권에 합류하려고 호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치졸한 검증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의 첫 오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론이 불거지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이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은 손 전 지사가 범여권에서 제기되는 검증 공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진정한 범여권 주자로 인정받고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손 전 지사가 범여권의 검증 공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민주 진영의 대선 주자로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본다. /*tuim@kwangju.co.kr



19일 광주를 방문한 천정배 의원이 이날 오전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지지선언식에 참석,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천정배 “‘천·신·정’ 역할분담 없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19일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은 대선 승리를 위해 큰 틀에서만 협력할 뿐 구체적인 역할분담은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유권자 지지선언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의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천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겨냥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하고 민주당 쇄신,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협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불복을 형성해 역할을 맡지는 않는다”며 “이 보다는

큰 틀에서 각자 장점을 내세우고 경쟁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손 전 지사의 ‘광주 정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순간적으로 좀 흥분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손 전 지사가 범여권으로 왔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천 의원은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한 뒤 목포 신안비치호텔로 이동, 서남권기독교평화포럼 초청강연회를 갖고 정중득 목포시장과 면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시장·박준영지사

통합민주당 탈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를 선언한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19일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3지대 신당 발기인대회가 24일인 만큼 그 이전에는 탈당을 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통합노력을 계속하되 늦어도 23일까지(탈당)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의 이른바 ‘잡탕식 통합반대’ 입장에 대해 박 시장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대통합에 동참하면 박 대표가 그 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면 호남사람도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대통합을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데도 박 대표만 고집을 부리고 있

‘제3지대’ 합류 재확인

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박 대표가) 대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뒤편을 쫓겨줘야 하는 원외지구당 인사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에 실패하면 총선에서 도끼를 휘둘러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김한길 대표와는 이야기가 잘 왜가고 있다”며 “(박 대표를) 마지막까지 설득해 함께 대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경쟁으로 가는 정당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양당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연말 대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 지사는 “민주당은 2차례 정권을 창출해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든 주역”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이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럴 만한 자격과 기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탈당이 우선이 아니고 탈당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서 대통합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최근 ‘잡탕식 통합 반대’ 운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합의 중심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대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대통합이 정 안되면(탈당도) 해야지”라고 여운을 남겨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원희룡 “한나라당 후보 서민과 민주화 세력 포용해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원희룡 의원은 19일 광주를 방문,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서민들은 물론 민주화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가진 한나라당 광주·전남 당

원희룡 “한나라당 후보 서민과 민주화 세력 포용해야”

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자신들이 가진 과

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박 후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민주화 세력에 대해 방어적이 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 후보에 대해서도 “서민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과거 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인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본사만의 장점

- 1. 베트남의 아름다운 여인들만 소개합니다.
- 2. 소개 기간은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
- 3. 현지에서 인연이 맺어지면
- 4. 베트남의 신부들 중에서 마음에 맞는 신부를 소개합니다. (1~3개월)
- 5. 소개기간 동안,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현지에서

이웃나라의 장점

- 1.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여인들만 소개합니다. (1~3개월)
- 2. 소개 기간은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
- 3. 현지에서 인연이 맺어지면
- 4. 베트남의 신부들 중에서 마음에 맞는 신부를 소개합니다. (1~3개월)
- 5. 소개기간 동안,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현지에서

문의 전화 062) 232-8966 / 010-5256-8966

여름대특강 개강

★카빙(carving) 파이프조각방식 스캐초밥 수강생 모집★
주3회 오전 10시/오후 4시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향식 초밥(시판)가게방식
- 향식 초밥(시판)가게방식
- 향식 초밥(시판)가게방식
- 향식 초밥(시판)가게방식
- 향식 초밥(시판)가게방식
- 카빙 파이프조각방식
- (4주 과정)

- 월~금 : 아홉시 11시 2시
- 월~금 : 한시 10시 2시, 7시
- 화~토 : 한시 10시 7시
- 화~토 : 한시 10시 3시
- 화~토 : 한시 10시 7시
- 화~토 : 카빙 파이프조각 10시 2시
- 화~토 : 한시 10시
- 화~토 : 한시 10시

이제부터 대한민국 합도 식문화 대안 **이제부터는 요리가 아니라 대안입니다**

*특강 수업시간에는 대안음식문화 관련 영상 시청 및 요리 실습

에스타원요리학원 (062) 385-0723, 384-1984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에스타원빌딩 3층